

1918  
2018  
100th ANNIVERSARY

서울시립대학교 소식지  
2018년 봄/여름호

Vol.77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T 02-6490-6114  
www.uos.ac.kr

# 서울인 세계인

서울시립대학교 소식지

2018년 봄/여름호

배움과 나눔의 100년  
서울의 자부심, 서울시립대학교

Vol.77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시대가 이끄는  
남북협력  
시대

박원순 서울시장의  
꿈꾸는 서울 그리고  
100년 시대

사진으로 보는  
시대  
이야기



# 1918 2018

100th ANNIVERSARY

'100'이라는 숫자는 '완성'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격동의 세월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유일의 4년제 공립대학교로  
자리매김한 서울시립대학교는 이제 한 번의 완성을 매듭짓고,  
다음 완성을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 서울시 세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소식지  
2018년 봄/여름호 Vol.77

발행인 원윤희 총장 발행일 2018. 8. 31 편집인 남진 기획처장  
발행처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  
기획·디자인 나로네트웍스 주식회사 인쇄 에스엔에스

본 페이지의 배경 디자인은 서울시립대학교 옛 지도를 사용하였습니다.

## Contents

###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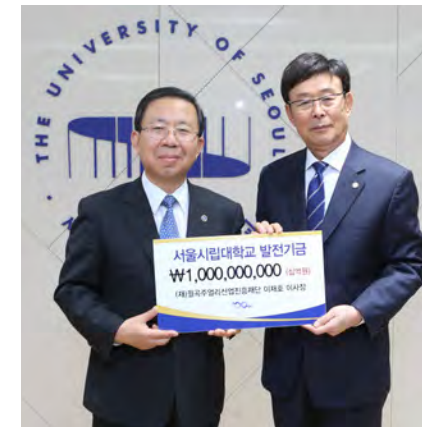
- 04 **Panorama**  
시대가 미래와 교감하는 방법
- 10 **Essay**  
시대가 이끄는 남북협력시대  
국사학과 정재정 명예교수
- 14 **Focus**  
상상선도로 열어갈 미래의 100년
- 18 **Hot Topic**  
시대의 주인공이 그리는 나의 시대

### 만남



- 20 **Interview I**  
시민이 도시의 주인입니다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
- 22 **Interview II**  
박원순 서울시장의 꿈꾸는 서울  
그리고 100년 시대  
박원순 서울시장
- 24 **Interview III**  
시대의 역량을 세상에 펼치다  
민경식·정동주 컴퓨터과학부 대학원생
- 26 **사진으로 보는 시대 이야기**
- 31 **시대인 이야기**

### 나눔



- 32 **Talk & Talk I**  
자연과 도시를 잇는 조경을 말하다
- 34 **Talk & Talk II**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시대인
- 36 **발전기금 기부 소식**
- 38 **기부자 명단**
- 40 **100주년 기념관 기부벽 설치**



### 100년 시대, 새로운 미래를 열다

1918년,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 속에서 문을 연 서울시립대학교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며 국내 유일의 4년제 공립대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시대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배봉산에서 바라본 1940년대  
교사와 농장 전경

## 시대(市大)가 미래와

## 교감하는 방법

지난 100년 동안 서울시립대는 어떻게 미래와 교감을 해 왔을까요? 어떻게 시대의 중심에서 새로운 학문적·공동체적 가치를 창출해 왔으며, 그 많은 인재를 육성해 왔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와 '세계'를 중심에 둔 배움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 가치를 통해 서울학문의 발전과 공동체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배움과 나눔은 10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서울시립대만이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상상력이자, 미래 공동체와 상생하는 힘이며 미래와 교감하는 방법입니다.

서울시립대의 처음인 경성공립농업학교가 미래의 길을 개척하던 시절은 우리 거리의 암흑기였습니다. 모든 희망과 가치가 어둠 속에 갇혀 그 어떤 미래도 꿈꾸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시대에도 경성공립농업학교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와 교감하는 방법은, 펼쳐질 시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역경을 이겨 내는 방법은 배움과 나눔에 있다는 것을.

그 배움과 나눔의 정신은 서울농업대학, 서울산업대학교로 성장해 나가면서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세상, 더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배움과 나눔은 서울시립대학교로 도약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에너지이자 전통이 되었습니다.

1

배움과 나눔으로

9

미래의 희망을

1

열기 시작하다

8



시대로



법학관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요즘,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의 소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변화를 공동체와 인류의 이로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재를 키우는 것과 동시에 그 소명에 충실하고자 '상상선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백간벽돌 갤러리

서울시립대는 진리와 학문의 전당으로서 기존 대학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움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2

상상선도의 구현으로

\*상상선도: 서울시립대학교의 새로운 비전 '상상하는 시대인, 상생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줄임말

0

새로운 글로벌

1

명문으로 도약하다

8



100년 후 서울시립대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가질 것입니다. 학문 본연의 가치와 미래 공동체 가치의 보고로서 서울시립대의 학문 연구와 비전을 통해 더 나은 시대의 청사진을 구축할 것이며, 인류를 위한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100년 후에도 서울시립대가 미래와 소통하는 방법의 중심에는 배움과 나눔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경성공립농업학교가 암흑 속에서 미래를 밝힌 저력 그대로 미래의 서울시립대도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기회와 희망으로 바꾸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진리와 혁신의 전당으로서 명예를 드높일 것입니다.

국제학사

2

세 계 의 중 심 에 서

1

인 류 를 위 한

1

미 래 청 사 진 을 제 시 하 다

8

남북 철도 연결로 보는 현시대와 시대의 역할

# 시대가 이끄는 남북협력시대

서울시립대가 100주년을 맞았다. 일제 강점기에 농업학교로 출발하여 해방 이후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대로 바뀌었고, 100년의 역사와 함께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국제적인 대학교로 성장했다. 서울시립대의 10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서울시립대는 동북아시아를 리드하는 명문으로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등을 다시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제안했다. 남북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함께 동북아시아 철도망을 연결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하여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당연히 한반도는 사람, 물자, 지식, 정보가 유통하는 결절지역이 된다. 한반도의 국제 정체나 내부 사정을 보면,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꿈과 같은 이야기 같지만 길고 긴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잠시나마 달래주었다.

그런데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기 이전 동북아시아에서 철도공동체가 가능한 적이 있었다. 특히 한반도는 그 허브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반도에서 운행된 국제열차를 통해 그 내력을 알아보자.

한국과 만주 중국의 간선철도는 모두 표준궤(궤간 1,435m)여서, 바퀴를 갈아 끼거나 궤조(레일)를 덧대지 않아도 열차가 국경을 넘어 곧바로 달릴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철도 궤간(두 레일 사이의 넓이)이 세력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서

국사학과 정재정 명예교수



“

남북한 철도 연결을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국제열차의 쓰라린 내력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동북아 철도공동체가 실현된다면 서울은 분명 그 허브가 될 것이다.

”



열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한반도에서 철도 궤간은 지대한 관심사였다. 일찍이 대한제국은 ‘국내철도규칙’을 반포하여 표준궤를 채택했다(1896.7.15). 이미 경인선 부설권을 손에 넣은 미국의 예를 따른 셈이다. 대한제국은 러시아의 압박을 받아 시베리아철도와 같은 광궤(1,524m)로 바꿨다가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이 후퇴하자 곧 표준궤로 돌아섰다.

일제는 한반도에서 철도부설권을 독점한 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본국과 같이 협궤(1,067m)로 건설하자는 관료 등의 주장을 물리치고, 표준궤를 채용했다. 한반도 철도를 아시아대륙 철도와 연결함으로써 러시아에 맞서 독점적 세력권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이었다. 당시 영국이 건설을 주도한 중국의 경봉선(북경-봉천, 지금의 심양)도 표준궤였다. 일제는 러일전쟁(1904~05)에서 승리한 후 실제로 안봉선(안동-봉천, 지금의 단동-심양), 연경선(대련-장춘, 나중에 만주국 수도 신경)을 표준궤로 개축하고, 압록강철교를 준공하여 경의선(서울-신의주)과 접속했다(1911.11.1). 경의선은 경부선(서울-부산)의 연장선이었다. 그리하여 서울과 부산에서 출발하는 급행열차는 각각 장춘과 봉천까지 직행할 수 있었다. 일제의 대륙 진출이 활발해지자 한반도와 만주를 왕래하는 직통열차는 더욱 확대되고, 발착 거점도 관부연락선(하관-부산)과 접속하는 부산으로 바뀌었다. 철도에 관한 한 한만국경(韓滿國境)은 이제 장애물이 아니었다.

한반도를 누비는 국제열차는 일제가 만주국을 세우자(1932.3.1) 고속 급행열차로 진화했다. 부산-

봉천-신경을 달리는 히까리(光, 1933.4.1)와 노조미(望, 1934.11.1)가 속속 등장했다. 두 열차의 일부는 하얼빈(哈爾濱)까지 달렸다. 조선총독부는 이에 뒤질세라 경부선을 6시간 45분에 주파한 특별 급행열차 아까쓰끼(曉)를 운행했다(1936.12.1). 일제는 중국본토침략을 개시한(1937.7.7) 후 부산-북경에도 직통 급행열차를 투입하고(대륙, 1938.10.1), 이듬해 흥아(興亞)를 증설했다(1939.11.1). 그리하여 경부선과 경의선은 명실공히 아시아 대륙의 중추 간선이 되었다.

일제는 1930년대 이후 한국과 만주의 동북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이 지역에서도 직통 국제열차를 운행했는데, '북선3항'(청진·나진·웅기)이 일본을 왕래하는 동해항로와 한만철도를 이어주는 주요 결절지점이었다. 일제는 두만강에 도문교(남양-도문)와 삼삼봉교(삼삼봉-개산둔)를 가설하고, 북선3항과 '신경'을 왕래하는 직통 열차를 운용했다(1934.3.31). 특히 나진-신경에는 급행열차 아사히(旭)를 배치했고, 나진-가목사(북만주 소만국경에 위치한 도시), 서울-목단강(동만주 시베리아 철도와 교차하는 도시), 평양-길림(만주 중부의 주요 도시)에도 직통열차를 운행했다(1940.10.1).

한반도를 왕래한 국제열차는 1943년 4월 이후 감축과 휴지를 되풀이했다. 일제의 패망이 임박한 1944년 2월부터는 국제열차의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화물열차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일제 패망 후, 한반도를 누볐던 국제열차 이름은 일본에서 모두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노조미'와 '히까리'는 신간선(新幹線)의 간판스타 이름으로 지금도 성가를 올리고 있다. 일본의 무던 역사 의식을 웅변하는 징표다.

현재는 물론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다. 따라서 철도도 더는 침략과 지배의 동맥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희망에만 취해 과거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북한 철도 연결을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국제열차의 쓰라린 내력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일제의 노조미(望, 꿈)와 히까리(光, 빛)가 진정 한국과 동북아시아 공동의 것이 될 수 있다.

동북아 철도공동체가 실현된다면 서울은 분명 그 허브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립대학교도 동북아시아를 견인하는 학문 도량으로 성장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 지난 8월 23일, 서울시립대는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학과 학술 연구 및 인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기점으로 개선된 남북 관계를 통해 대학 간 교류가 가능해졌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시대인(市大人)은 작금의 시대(時代) 변화를 자각하고 대비하고 있는가? 공연한 노파심이 일어 잠을 실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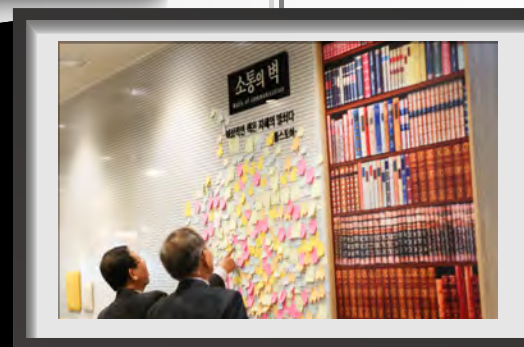
“ 일제는 1930년대 이후 한국과 만주의 동북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이 지역에서도 직통 국제열차를 운행했는데, '북선3항'(청진·나진·웅기)이 일본을 왕래하는 동해항로와 한만철도를 이어주는 주요 결절지점이었다. ”



## 서울시립대,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다!

### 평양과학기술대와 MOU 체결

서울시립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평양과학기술대학(총장 전유택)과 학술 연구와 및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8월 23일, 시립대 본관에서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은 남북 대학 간의 효과적인 연구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학술 및 학생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 대학 관계자가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다. 앞으로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실용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학술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상하는 시대인, 상생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립대

# 상상선도로 열어갈 미래의 100년

서울시립대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새로운 기치로 내건 서울시립대의 비전은 '상상선도'다. '상상하는 시대인, 상생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립대(UOS = U Our Star: University of Seoul)'를 뜻한다.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相), 교육과 연구를 생각(想)하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相) 협력의 가치를 생각(想)한다는 의미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다변화 사회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또 어떻게 공동체와 함께하는 상생의 시대, 미래 및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나아갈 것인가? 더불어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그래왔듯이 어떻게 시대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를 육성할 것인가?

이러한 거시적인 방향을 실현 가능한 밑그림으로 만들고,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립대가 특성화 및 차별화 전략을 구축했다. 새로운 100년의 꿈을 이뤄 나가기 위해 구축한 '2040 비전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2040 비전체계'에는 '진리, 창조, 봉사'라는 서울시립대만의 교훈과 '서울의 자부심이 되고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한다'는 비전 실천 목표가 녹아 있다.

서울시립대가 선포한 비전은 '상상선도'다. '상상하는 시대인, 상생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립대'라는 뜻인 새로운 비전은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세계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서울시립대의 의지는 '서울의 자부심이 되고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한다'는 비전 실천목표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또 비판적 사고와 시대정신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고, 미래를 연구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응용하고 활용하며, 모든 활동과 사고범위를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등 실천목표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서울시립대는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 자율의지와 융합적 사고로 미래를 여는 인재,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육성해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공동체는 물론 세계를 포용하는 대학으로 성장, 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더 나은 미래 창출로 세계와 상생하는 최고의 대학으로 나갈 것이다.



상상선도: 상상하는 시대인, 상생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립대를 뜻한다.

**상상선도**

상상하는 시대인, 상생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는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相) 교육과 연구를 생각(想)하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相) 협력의 가치를 생각(想)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상생(相生)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대를 선도(先導)합니다.

진리   선도	창조   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판적 사고와 시대정신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li> <li>미래를 연구하고 미래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합니다.</li> <li>모든 활동과 사고 범위를 세계로 확장해 나갑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성과 인성을 갖추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li> <li>자율의지와 융합적 사고로 미래를 엮습니다.</li> <li>협력과 소통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li> </ul>

**UOS**  
서울의 자부심이 되고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합니다.

**봉사 | 상생**

-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두를 포용합니다.
-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합니다.
- 시민과 구성원 모두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합니다.





**01. 개교 100주년 기념식 새 비전 선포**

지난 5월 2일 개교 100년을 맞아 '상상하는 시대인, 상생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립대학교'를 새 비전으로 선포했다. 원운희 시립대 총장은 2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캠퍼스 광장에서 열린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도시과학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특성을 활용해 도시재생, 환경, 교통, 행정 분야의 남북 협력 어젠다를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념식 보러 가기



**02. 『서울시립대학교 100년사』 발간**

서울시립대학교 100년을 기념하며, 그 역사를 집대성하기 위해 2015년 가을 '서울시립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 5월, 『서울시립대학교 100년사』를 발간했다. 『서울시립대학교 100년사』는 시립대 전체 역사와 모든 학부·과 역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더욱 품격 있는 저술을 통해 우리 대학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3. 경농관의 모습이 담긴 개교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지난 4월 2일 우정사업본부는 1937년에 건설된 경농관의 모습이 담긴 서울시립대 개교 100주년 기념우표 67만 2천 장을 발행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한 세기에 이르는 역사를 품은 서울시립대가 올곧은 교육 정신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장으로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100년을 써 내려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4. 100주년 기념 교표 디자인 개선**

2018년 개교 100주년을 계기로 교표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하였다. 서울의 첫 자 'S'를 모티브로 하여 서울시립대인의 기상과 학교의 영원한 발전을 상징하였고, 안으로 모이는 흐름은 교수, 학생, 직원과 동문들의 화합과 조화를 나타낸다. 오랜 전통의 인간 중심 대학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미래상의 첨단 대학을 추구하며 인간과 도시를 조화시키는 기존 교표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학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05. 시민과 함께한 개교 10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지난 5월 3일 개교 100주년을 맞아 '서울시민과 문화공유를 위한 개교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100주년 음악회는 서울시민, 동문, 학부모, 그리고 학내 구성원인 학생, 교수, 직원 등 200명이 합창단으로 나서 감동의 향연을 펼쳤다.



음악회 감상하기



**06. 개교 100주년 기념 노벨상 수상자 초청 특강**

지난 5월 1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초청특강이 열렸다. 이날 특강에는 2015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카지타 타카야키 도쿄대 교수가 강의자로 나서 '기초과학 연구와 학술교류의 미래-일본 카미오카에서의 연구를 회고하면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타카야키 교수의 강연이 끝난 뒤에는 아리모토 노부오 서울대 객원교수, 김영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회장,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의 강연도 이어졌다.

**교표로 보는 서울시립대의 100년**



**01\_ 경성공립농업학교(1918~1956)**

서울시립대는 일제 강점기인 1918년 2월 28일에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5월 1일 고양군 송인면 소재 경기도 종모장의 일부에서 경성공립농업학교로 시작했다. 경성공립농업학교는 교표에서 보듯 당시에 발간되던 교우회지 제목이기도 한 '경농'으로 불리는 일이 많았다.



**02\_ 서울농업대학(1956~1973)**

1956년 4년제 대학인 서울농업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대학 설립자를 서울특별시인으로 하고 대학 관리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담당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공립 대학이 되었다. 이에 '서울'과 농업의 '農', 대학의 '大' 자를 함께 상징으로 사용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공립대학으로의 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03\_ 서울산업대학(1974~1981)**

학문과 진리탐구의 전당이면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산실이란 뜻으로 전체형상은 大人의 글자 모양이며 ▲은 펜촉을 표시한다. 또 완만한 인격 도야의 장으로 무궁한 발전을 상징한다.



**04\_ 서울시립대학(1982~1987)**

교화인 개나리 잎으로 둘러진 원형은 완만한 성품과 단합을 의미한다. 개나리는 서울특별시의 상징 꽃으로서 산학협동체제를 의미하고 내부 형상 형은 市+立+大의 화합으로 신성한 건물(파르테논신전형) 표시로서 학문의 전당과 도약을 상징하며 글씨의 수직, 수평, 사방형은 다양한 포용성 속에 질서를 상징한다.



**05\_ 서울시립대학교(1988~1997)**

완만한 성품과 단합을 의미하는 ◎의 안쪽 원은 대학 내의 단합을, 바깥쪽 원은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립대학교의 산학협동체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부형상은 市+立+大의 합으로 형은 신성한 건물(파르테논신전형) 표시로서 학문의 전당과 도약을 상징하며 글씨의 수직, 수평, 사방형은 다양한 포용성 속에 질서를 상징한다.



**06\_ 서울시립대학교(1998~2018)**

서울의 첫 자 'S'를 모티브로 하여 서울시립대인의 기상과 학교의 영원한 발전을 상징하며, 안으로 모이는 흐름은 교수, 학생, 직원과 동문들의 화합과 조화를 나타낸다. 오랜 전통의 인간 중심 대학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미래상의 첨단 대학을 추구하며 인간과 도시를 조화시키는 기존 교표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학의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2018년 개교 10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개선했다.



**07\_ 서울시립대학교(2018~)**

오랜 전통의 인간 중심 대학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미래상의 첨단 대학을 추구하며 인간과 도시를 조화시키는 기존 교표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학의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2018년 개교 10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개선했다.

# 시대의 주인공이 그리는 나의 시대

서울시립대학교 1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는 시대인 개인의 역사도 함께 흐르고 있다. 누군가에게 시대는 청춘의 한 페이지였을 것이고, 열정을 바친 직장일 수도 있고, 부푼 꿈을 안고 찾아온 이국의 대학일 수도 있다. 시대에서 서로 다른 추억을 만들고 있지만, 시대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다양한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내가 생각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내 삶이 서울시립대학교

이부영(교수, 환경원예학과)



2018년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명받았다. 1976년 7월부터 21년간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직 근무와 1997년 9월부터 21년간 해운 서울시립대학교에서의 교직 근무가 끝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 길은 4학년 봄, 강의실에서 올해 농업연구직 시험이 있으니 응시하라는 은사님의 권유에서 비롯되었다. 연구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또 대학 강의를 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로 오게 되었다.

1971년 서울시립농업대학 원예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된 서울시립대학교와의 인연. 당시 입학 정원은 5개 학과 120명, 원예학과는 30명, 전교생 480명이었다. 농업대학은 단과대학이었지만, 전임교수는 여타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대학원은 아직 없어서 오히려 학부생들이 교수님들의 연구에 참여하고, 원예학 연습(Seminar)이나 원서 강독 강좌에 참여했다. 특히 실험통계학이나 당시 최신 과학인 방사선생물학 등의 강좌도 있었다.

오늘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은 자질이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대학 학습은 스스로 공부하며, 교수와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 강의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교수와 또 동료들과 같이 노력해 보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등 사회에 관심을 가져 졸업하고서도 나와 조직이, 사회와 나라가 발전하는 데 힘이 되는 시립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 오늘날의 기초가 된 서울시립대학교와 구성원들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 서울시립대 100년을 잇다



이연옥(교직원)

나의 외조부께서는 1918년 경성공립농업학교 제1회 입학생이며, 서울시립대학교의 첫 동문입니다. 큰외삼촌은 농업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하셨고, 산업대학이었을 때는 나의 고모님이 문교부 공무원으로 당시 교무과에 근무하셨다. 이러한 집안 내력은 1985년부터 100년을 잇는 2018년 현재까지 서울시립대학교에 근무해 온 내게 큰 자부심이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곳보다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다. 100주년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기획과로 발령받아 공모를 통해 진행된 100주년 엠블럼 제작 사업을 완료했다. 또 현재 우리 대학의 비전과 교육 이념, 특징점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서울시립대학교 브랜드 이미지 제작 사업인 교표 개선 제작을 담당하면서 내겐 더더욱 특별한 100주년이 되었다. 앞으로 100년을 더 잇게 되길 희망한다.



## 나에게 시립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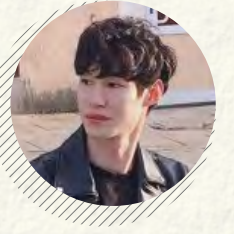
박태현(재학생, 홍보대사 이루미 13기 회장)



서울시립대학교는 나에게 고마움 그 자체다. 지금부터 4년 전인 2014년, 어려웠던 고3 입시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서울시립대의 선택을 받았다. 이때부터 이미 너무도 좋았던 우리 학교는 서울시립대 학생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 좋다는 생각을 넘어 내게는 최고의 대학이라는 마음이다. 난 우리 학교의 '반값등록금'이 너무도 고맙고 든든하다. 나는 우리 학교 등록금을 '스스로 등록금'이라고 말하고 싶다. 배움과 가르침을 우선으로 하는 대학교로서 학생이 학생답게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대학교가 바로 우리 서울시립대라 자부한다.

그리고 나는 영광스럽게도 100주년을 맞은 서울시립대학교의 '홍보대사 이루미'가 되었다. 임기가 단 1년이기에 100주년인 올해에 우리 학교를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 사실은 시대인 모두가 서울시립대학교의 홍보대사라고 생각한다.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많지 않기에 2018년은 너무도 뜻깊은 해임이 분명하다. 내가 좋아하는 우리 학교가, 시대인들이 좋아하는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이제 한 세기를 넘어 더 넓은 역사 속에서 계속 성장하여 서울의 중심에서 훨씬 더 나아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 100년 동안 쌓일 수많은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이명복(졸업생, 영문학과 07학번)

고등학교 시절, 휘경동에 살던 나에게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는 집 앞 공원과 같은 곳이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대학 생활의 꿈을 키운 나는 재수 끝에 마침내 영어영문학과 07학번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돌아보니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다. 현재 나는 공무원이 되어 약 9년간 이어진 대학생활의 자양분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 나의 모교 서울시립대학교의 미래에 각각의 수많은 해피엔딩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길 바란다.

# 시민이 도시의 주인입니다

도시의 '정석'  
이상적인 도시로  
다가가는 '서울'을 말한다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

“서울시립대는 다른 어디도 아닌 서울시가 만든 대학입니다. 그 안에서 100년이라는 긴 역사도 만들었고요. 시와 시립대의 관계를 저는 약간 토라진 연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

지난 5월 2일, JTBC의 교양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가 출연해 ‘당신은 이 도시에서 행복한가요?’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강연을 했다. 정석 교수는 강연에서 “꿈꾸는 도시를 만들려면 표현하고 행동하라! 도시에서 사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도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 교수가 생각하는 서울 그리고 시대는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_ 시립대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립대와 서울은 여러 면에서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립대의 100년과 서울이란 도시는 서로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서울시립대는 다른 어디도 아닌 서울시가 만든 대학입니다. 그 안에서 100년이라는 긴 역사도 만들었고요. 시와 시립대의 관계를 저는 약간 토라진 연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는 시대로 시립대에 반값등록금을 비롯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줬고, 학교는 학교대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기대한 만큼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할까요.(하하) 이런 부분은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만든 대학교이니 만큼 시립대는 시민과 도시를 중시하는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생김새부터가 특별하죠. 전반적으로 나지막하고, 녹지도 많고, 오래된 건물도 남아 있습니다. 과밀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차보다 사람을 배려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 자체가 주민들의 쉼터가 되기도 합니다. 주말이면 운동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도 볼 수 있죠. 앞으로도 시와 시립대가 더욱 존중하면서 좋은 파트너십으로 서로의 역할을 다해 서울을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합니다.

Q \_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도시란 어떤 형태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듯 도시도 고층 건물이 있고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에는 만들어진 아름다움과 고유의 아름다움 두 종류가 있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전주는 전주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저마다 갖고 있는 개성이 있는데, 그것이 잘 드러난 도시가 좋은 도시이자 이상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Q \_ 지금 서울이란 도시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에 얼마만큼 다가서 있나요?

요즘 말로 하자면 서울은 ‘생얼’이 아름다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수도 한양의 성곽은 산 능선을 따라 만들어져 있습니다. 북경과 비교하면 북경은 평지에 네모반듯한 성을 만들었는데 한양은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과 같은 산의 능선을 따라 성을 만들어서 형태가 약간 비정형입니다. 도로도 직선으로 가다가 휘어지기도 하고요. 타고난 아름다움을 자연 지형 그대로 살려가면서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한강 변이나 산 주변을 보면 건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본래 서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자꾸 잃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는 개발이 아니라 도시 재생, 도시 혁신과 같은 노력을 많이 기울



이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유도시, 도시혁신과 같은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고, 이런 추세가 좀 더 지속되면 우리나라 도시도 선진국들처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은 이상적인 도시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Q \_ 지금 서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설계,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우리 도시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 취임식을 할 때,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붙여놨었습니다. 이것은 천만 시민에게 시장이 되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시민은 투표만으로 내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시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참여해야 합니다. 도시 전체에 대한 참여가 어렵다면 우리 마을부터 관심을 가져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혹은 우리 동네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마을에 문제는 없는지, 자동차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불편하진 않은지, 만약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민원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시민이야말로 ‘최고급 시민!’입니다.

Q \_ 여러 가지 업적이 있으시지만 역시 정석 교수님 하면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이 떠오릅니다. 도시공학과 교수이지만 개발보다는 보존하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데요, 계기가 된 일이 있었나요?

도시설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도시와 있는 것을 잘 돌보는 도시로요. 전자의 경우는 물건을 만드는 일이라고 보고, 후자는 생명체를 다루는 일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도시설계를 생명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자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개발, 재개발로 도시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서울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서울은 많은 것이 개발된 후였는데요,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이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힘을 썼습니다. 주민들의 반발, 건물주들의 항의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지켜냈고, 그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도시설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도시와 있는 것을 잘 돌보는 도시로요. 전자의 경우는 물건을 만드는 일이라 보고, 후자는 생명체를 다루는 일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 박원순 서울시장이 꿈꾸는 서울 그리고 100년 시대

‘살고 싶은 도시, 서울  
가고 싶은 대학, 서울시립대’

역대 최고의 폭염이었던 지난여름,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달살이를 시작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사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했다. 시민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소통한 박원순 시장의 다음 행보는 어떤 모습일지 알아보고, 서울시립대 100주년을 함께 맞는 소회를 들어 보았다.

## ❶ \_ 폭염 속의 옥탑방 한달살이, 그 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실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올 줄은 몰랐지만, 많은 분이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이 달라지듯,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바뀌게 됩니다. 시청 안에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단지 몇 시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 들어가 생활하다 보니 도시 안의 불균형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삼양동으로 대표되는 강북의 현실에서 99:1의 불평등 사회를 몸으로 느끼고,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문제를 넘어 더 깊은 고민으로 근본적 대안을 찾아갈 것이며, 강남북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생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청 안에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단지 몇 시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 들어가 생활하다 보니 도시 안의 불균형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좋은 정책이 잘 수행되려면 좋은 인력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 메르스 등 건강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도시 보건전문가 양성, 공공보건의로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이 만들어졌습니다.”

## ❷ \_ 강북 지역 대학 문화를 이끌 청량리 일대 활성화 계획

청량리 일대는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중심은 도심의 글로벌 기능을 보완하면서 업무·상업·문화·관광R&D·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특화된 광역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확산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만큼 청량리 일대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함께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3월에 발표한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따라 청량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동북권 발전 선도 축으로 설정해,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 ❸ \_ 서울시 공공의료 발전과정에서 시대 활용 로드맵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 복리 증진과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한자안심병원, 301네트워크(의료·보건·복지)를 하나로 연결, 대사중후군 관리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것들이 모두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사업들이지요. 좋은 정책이 잘 수행되려면 좋은 인력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 메르스 등 건강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도시 보건전문가 양성, 공공보건의로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등 건강 위협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분야, 노숙인·불법체류 외국인 등 소외계층과 결핵·당뇨 등 관리, 보건·의료·복지를 연계 통합한 전문분야와 도시화 확산에 따른 도시개발·재생에 건강친화정책 연계 등에 시대 도시보건대학원과 졸업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주실 거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❹ \_ 서울시립대와 서울시의 상생 가치 실현

서울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도시입니다. 싱가포르 리관유 세계 도시상을 수상했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보도한 세계도시 색인 2017년판 조사 결과 세계 7대 도시로 뽑히기도 했지요. 이제까지의 혁신의 성과를 집약, 연결, 확장해서 글로벌 넘버원도시가 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서울의 미래를 서울시립대와 함께 걸어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미래를 통찰하는 시대의 안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서울의 발전, 세계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더 많은 실력자를 시대에서 키워 나가길 바랍니다.

## ❺ \_ 새로운 100년을 맞는 시대 구성원에게 전하는 말

한 해를 준비하는 이는 씨앗을 뿌리고, 10년을 생각하는 이는 나무를 심으며, 100년을 내다보는 이는 사람을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부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서울시립대는 높은 교육철학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시대의 인물과 정신을 배출해 왔고, 여러분이 모두 산증인이십니다. 백년대계의 첫 번째 싹표를 찍고, 새롭게 맞이하는 서울시립대의 새로운 100년을 응원하며, 또 한번 청년의 미래, 시대의 희망으로 거듭나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시대의 역량을 세상에 펼치다

## ‘블록체인 경진대회’ 최우수상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 ‘블록체인 경진대회’에서 우리 대학 컴퓨터과학부 대학원 민경식·정동주 학생이 ‘웹 서버 부하 테스트를 위한 대규모 p2p 시스템’으로 최우수상을 받아 화제다. 아직 우리에게 낯선 단어인 ‘블록체인’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컴퓨터과학부 대학원생 민경식·정동주

“ 저희가 고안한 ‘웹 서버 부하 테스트를 위한 대규모 p2p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중앙 기관의 관리 없이, 정확도 높은 서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 Q \_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은 기존 중앙 기관에서 관리하던 장부를 중앙 기관 없이 분산하여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장부를 분산하여 저장하기에 위·변조가 힘들고,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장부만 저장하는 비트코인에서 발전하여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추가하여 확장성을 넓힌 이더리움 등이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는 블록체인과 함께 생태계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 토큰 이코노미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Q \_ 기존 시스템과 ‘웹 서버 부하 테스트를 위한 대규모 p2p 시스템’의 차이는?

저희가 고안한 ‘웹 서버 부하 테스트를 위한 대규모 p2p 시스템’은 토큰 이코노미 개념을 근간으로, 제공받은 네트워크 자원을 웹 서버 부하 테스트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서버 테스트 도구의 경우에는 소수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중앙 기관의 관리 없이, 정확도 높은 서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컴퓨팅 자원을 임대해 주는 대표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으로는 Golem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 처음 고안한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능은 구현되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의 완성도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현된 시스템을 확장하여 웹 서버 부하 테스트뿐만 아니라 컴퓨팅 자원 임대를 통해 다른 기능들도 수행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CPU, GPU 자원을 제공받아 그리드 컴퓨팅을 통해 가상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저희 시스템은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틸리티 컴퓨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컴퓨팅 자원을 공유한다는 발상은 동일하지만 구현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시스템을 이용한 기능도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Golem은 가상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저희 시스템은 여러 개의 컴퓨터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_ ‘웹 서버 부하 테스트를 위한 대규모 p2p 시스템’의 특이점은?

해당 프로젝트는 분산 처리, 블록체인과 같은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과 토큰 이코노미처럼 경제학적 개념이 혼합된 형태라서 소수의 개발자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완성된 형태로 만들기에는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아직 블록체인 기술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아,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가 어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처음 고안한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능은 구현되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의 완성도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현된 시스템을 확장하여 웹 서버 부하 테스트뿐만 아니라 컴퓨팅 자원 임대를 통해 다른 기능들도 수행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Q \_ 메신저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에 대한 견해는?

메신저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은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 결합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들이 오가는 메신저 특성상 중앙 서버에 대화 내용이 저장될 경우, 사용자는 해킹같이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블록체인만 이용하여 이를 구현하기에는 속도 등의 문제가 있어, 중앙 서버와 블록체인의 사용을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Q \_ 앞으로의 연구개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범용성 있는 유틸리티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Golem은 아직 연산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 저희는 제공받은 컴퓨팅 자원의 검증 과정을 추가하여 팀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고, 또 범용성 높은 컴퓨팅 자원 대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검증 과정이나 분산 처리 등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시대 이야기

2018. 5. 3

100주년 기념 음악회



2018. 5. 11

노벨상 수상 석학 초청 특강



2018. 5. 15

100주년 기념 나눔장터



2018. 5. 15

대동제



2018. 5. 23

도시보건대학원 학술세미나 및 개원식



2018. 6. 12

야외환경조각전



### 사진으로 보는 시대 이야기

## 2018. 6. 14

제47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



## 2018. 7. 12

100주년 기념 건축작품전시회



## 2018. 7. 17

해외봉사단, 키르기스스탄에서 100주년 그리다



## 시대인 이야기

## 2018. 3. 23

조경학과 이상석 교수  
제24대 (사)한국조경학회장 당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이상석 교수가 2018년 3월 23일 한국조경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한국조경학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상석 교수는 "조경학계의 소통과 혁신을 통하여 조경학의 학술연구 및 교육지원을 강화, 산·관·학 협력체제 구성, 제도 개선 및 정책제안 등을 통한 새로운 조경학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 2018.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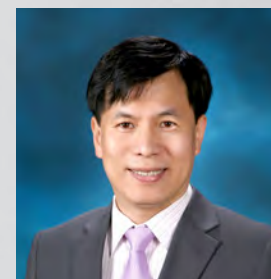
구부림 내구성이 뛰어난  
고전도성 젤 전해질 개발



화학공학과 문홍철 교수 연구팀이 랜덤공중합체를 기반으로 기계적 내구성과 높은 이온전도성을 동시에 구현해낸 고성능 고체 젤 전해질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저명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논문 인용색인) 국제 저널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mpact factor: 12.124)지에 지난 4월 5일 표지논문(front cover)으로 게재되었다.

## 2018. 5. 25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연구소(계산과학연구소)가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선정되었다. 서울시립대가 선정된 중점연구소는 자연과학대학 계산물리 연구센터(센터장 박인규 교수)를 중심으로 "머신러닝을 접목한 거대계산과학 연구와 그 응용"을 주제를 가지고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거대계산과학분야의 전문가와 미래 데이터과학자의 육성이 기대된다.

## 2018. 7. 2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레이저 및 광 반도체 연구실  
OECC 2018 SPIE Best Student Paper Award 수상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레이저 및 광 반도체 연구실 소속 석·박사 통합과정 이진호 학생이 지난 2018년 7월 2일부터 5일간 제주도 ICC에서 열린 OECC 2018(The 23rd Opto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 2018)에서 SPIE가 후원하는 Best Student Presentation Award를 수상하였다.



# 자연과 도시를 잇는 조경을 말한다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을 좋아한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도 도로변 가로수 그늘에서 한숨을 돌리고, 숲이 있는 공원을 찾아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한강 옆 잔디밭에서 여유를 즐긴다. 이렇듯 화색빛 도심에 푸르른 자연을 이어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경학과 김아연 교수와 학석사연계과정 대학원 2학기 12학번 이상민, 14학번 김희원, 주민수, 강건희 학생을 만나 조경에 대해 들어봤다.

## 김아연 교수가 말하는 — 시대 조경학과

흔히 조경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인들은 나무를 심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조경은 그런 작은 부분부터 지구적인 관심사까지 다루는 학문입니다. 우리 대학 조경학과와 가장 큰 특징이라면 유일하게 도시과학대학이라는 단과대학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 환경이나 도시 환경을 다루면서도 도시 속에서 생태적인 건강성이나 도시의 환경적인 측면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학제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학교 내에서도 타 학과와 교류가 많은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졸업작품전 같은 경우 다른 과와 같이 진행하다 보니 또래끼리 눈높이를 맞추며 동시대의 도시에 대해서 각 분야의 학생들이 같이 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학부에서 조경에 대한 기초를 다진다 하면 석박사 과정부터는 관심 있는 세부 분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에는 훌륭한 교수님이 많고, 교수님들의 세부 연구 분야에 따라 연구실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환경이나 생태적인 측면을 연구하거나, 시공과 엔지니어링, 전통 조경은 물론 설계를 통해서 실제적인 사회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커뮤니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는 연구실도 있습니다.

조경을 전공하는 학생이 어떠한 사소한 관심일지라도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조경학과 내에서는 그것을 심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가 마련되어 있고,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석·박사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우리가 조경에 대해 — 말하고 싶은 이야기

### 움직이는 정원으로 바뀌는 미래의 조경 학석사연계과정 대학원 2학기 12학번 이상민

조경이라는 것은 생물이나 건물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정적인 학문 혹은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조경도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멈춰 있는 공간에 꾸미는 것이고,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산업으로 발상을 전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배달업을 포함하여 운송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처럼 포터블한 정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용기와 정원 박스를 활용해 공간을 만들고 운송을 할 수 있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자신의 디자인이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땅을 매만지고 재창조하는 작업, '조경'

#### 14학번 강건희

저는 기본적으로 조경이란 땅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경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이 바로 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땅이 어떤 존재였는지 읽어내면서 그 땅을 매만지고 재창조해 내는 작업이 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학과 진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조경학과는 다방면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학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자연, 조경과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조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조경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 융합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조경학

#### 14학번 김희원

조경이란 분야가 기존에는 공간에 대한 분석과 계획 설계에 강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새로운 분야와 융합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조경학과는 기본적으로 도시과학대학에 속한 모든 과와 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도시공학이나 도시행정뿐만 아니라 교통공학에서도 도로와 조경을 연계할 수 있고, 일상 생활하는 모든 공간이 조경과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과학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는 많이 시도되지 않았던 자연에 대한 수치적 해석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경을 해석할 수 있다면 조경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지만, 조경과 심리를 융합하여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경으로 만드는 도시 속 유토피아

#### 14학번 주민수

조경은 도시 속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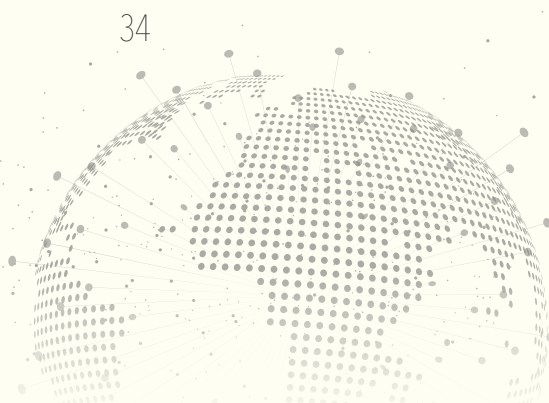


01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02 시립대 조경학과 김아연 교수  
03 14학번, 조경학과 학부 3년생 강건희①, 주민수②, 김희원③, 12학번, 조경학과 조경상세설계 및 시공구조연구실 학석사연계과정 2학기 이상민④

이 유토피아라는 이야기는 김아연 교수님께서 <환경조경대전>이라는 잡지에 쓰셨던 칼럼에 나온 이야기인데, 저는 그 글에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속에서 조경이란 공간은 한 개인이 아닌 공공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공의 공간을 만들 때는 많은 사람이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유토피아가 현실적으로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뜻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허황된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유토피아에 가까운 조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 글로벌 학생 3인이 말하는 '나의 시대'

#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시대인



김다닐  
컴퓨터과학부 18학번

나수몬찌  
사회복지학과 18학번

메게문  
환경공학과 13학번

바야흐로, 외국인 유학생 6만 명 시대. 사회 전반의 거센 세계화의 물결 아래 고등교육의 글로벌화는 교육부문의 중요한 화두다. 서로 다른 국적과 성장 배경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 3인을 만나 꿈의 요람 서울시립대의 이모저모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 서울시립대에 몸담게 된 계기는?

**중국** 상하이에서 두 시간쯤 떨어진 안후이성 허페이시가 고향이다. 한국의 지방 대학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석사과정까지 마쳤지만 환경공학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쌓고 싶어 서울시립대에 입학했다. 현재는 환경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으며 내년 졸업을 앞두고 논문 준비 중이다. 보통 유학생은 학교를 먼저 선택하고 전공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내 경우에는 전공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훌륭한 대학을 선택했다. 그 결과가 바로 서울시립대였다. **러시아** 러시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장학 프로그램으로 한국 고등학교로 편입했다. 이후,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서울시립대를 알게 되었고 입학하게 되었다. 지금은 컴퓨터공학과 1학년 새내기다. **미얀마** 미얀마의 대학에서 영어영문과를 2년 다니다 그만두고 한국에 왔다. 전라남도 목포의 여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그곳 선생님에게 서울시립대를 추천받았다. 2번의 고배를 마시고 3번째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시대인이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

#### 서울시립대의 첫인상은?

**중국** 대학인지 공원인지 모를 만큼 녹지가 많고 조경이 아름다워서 놀랐다. 일반적으로 대학이라면 입구에 상징물이 있고 외부와 캠퍼스의 경계가 뚜렷하기 마련인데, 시립대는 열린 공간인 데다 캠퍼스를 시민들과 공유한다. 인상적이었다.

**러시아** 학교가 예쁘다. 캠퍼스를 걷다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질 정도.

**미얀마**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을 주지만 친해지면 어떤 사람보다 친절하다. 여학당에서의 생활이 잊지 못할 정도로 정말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외로움과 낯설음으로 시작하게 될 시대에서의 생활에 두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먼저 다가와 준 친구들과 다정한 교수님들의 배려 덕분에 지금은 완벽하게 적응했으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생활에 임하고 있다.

#### 모국과 차별화된 서울시립대의 교육 시스템은?

**중국** 주로 포괄적 내용으로 정해진 강의만 있는 중국에 비해 시대는 과정이 심화될수록 학생이 주제적으로 창의적인 아이템을 찾고 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서 공부의 폭이 넓고 깊다.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러시아** 입학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교육 시스템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한다. 사실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해서 강의도 조금 어렵다. 하지만 친구들과 교수님의 도움, 자상함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다. 교육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시대에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넘친다.

**미얀마** 미얀마는 대학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1개월에서 3개월만 운영된다. 공부에 대한 열망이 채워지지 않아 더 큰 꿈을 찾아 한국에 오게 되었다. 한국에서 찾은 나의 꿈은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다. 시대에서 반드시 내 희망을 실현하고자 한다.

#### 한국이나 한국 대학에서 느꼈던 컬처쇼크가 있다면?

**중국** 한국 식당에서는 겨울에도 얼음냉수를 주더라. 중국은 여름에도 식당에서는 따뜻한 물을 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신기

했다. 중국과 다르게 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많다는 것도 놀라웠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고 학교 전체가 들쭉이는 분위기는 경험할수록 신나고 즐겁다.

**러시아** 신입생인데도 오래전 성인인 된 것처럼 술을 많이 마신다. 그게 놀라웠다.

**미얀마** 한국 사람들의 첫인상은 처음에는 가까이 다가가기에 너무 어려운 느낌이었다. 친해지기는 조금 어렵지만, 친해지고 나면 어느 나라 사람보다 더 다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준다.

#### 서울시립대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으로 실현하고 싶은 자신만의 꿈은?

**중국** 중국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중국에 들어가 환경공학 전공을 살려 수처리, 하수폐수처리, 폐기물처리 등의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일에 몸담고 싶다.

**러시아** 최종적으로는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스타트업 회사를 꿈꾼다. 하지만 지금은 1학년으로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미얀마** 지식 없이 주먹구구식 경험만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많은 탓에 미얀마에서는 전문 지식을 겸비한 좋은 사회복지사를 만나기 어렵다. 시대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에서 열정을 다하는 최고의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싶다.

#### 서울시립대에 입학할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하고픈 한마디는?

**중국** 도전하세요. 후회 없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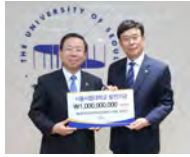
**러시아** 부족함 없이 공부하고 싶다면 서울시립대로 오세요. 서울시립대에는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미얀마** 외국인 유학생이 고립될 것 같다는 생각은 서울시립대에서는 편견에 불과해요. 외롭지 않게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면 꼭 서울시립대로 오세요. 서울시립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줄 거예요.

# 발전기금 기부 소식

## 1. 이재호 이사장(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10억 원 기부

이재호 이사장(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4월 6일 장학금 5억, 100주년 기념관 이름남기기 캠페인 5억, 총 10억을 기부했다. 4월 6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실에서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기금은 장학금과 100주년 건립기금으로 사용된다. 이재호 이사장의 이름은 100주년 기념관에 '월곡국제회의장'으로 새겨진다.



## 2. 복지회, 3억 원 기부

복지회는 4월 11일 일반발전기금 5천만 원, 100주년 기념관 이름남기기 캠페인 5천만 원, 장학금 2억 원, 총 3억 원을 기부했다. 기금은 100주년 건립기금, 장학금, 일반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복지회의 이름은 100주년 기념관에 '복지회 스테디룸'으로 새겨진다.



## 3. 이성수 동문(수의 58), 2억 3천 9백만 원 기부

이성수 동문(수의 58)이 100주년 기념관 이름남기기 캠페인 총 2억 3천 9백만 원을 기부했다. 7월 3일 이성수 동문님 자택에서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기금은 100주년 건립기금으로 사용되며, 이성수 동문의 이름은 100주년 기념관에 '이성수 강의실'로 새겨진다.



## 5. 김혁 교수(행정학과), 3천만 원 약정

김혁 교수(행정학과)는 4월 18일 장학금 3천만 원을 약정했다. 이 기금은 행정학과와 연계한 학우 대상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 4. ㈜우리은행 1억 25만 원 기부

㈜우리은행이 2월 1일 행복가속사 장학금 25만 원, 5월 15일 학술·연구기자재 구입 및 시설확충 지정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기금은 행복가속사 장학금 지원 및 산학협력단의 학술·연구기자재 구입 및 시설확충 기금으로 사용된다. ㈜우리은행의 이름은 100주년 기념관에 '우리은행 실내체육관'으로 새겨진다.

## 6. 세무학과 동문회, 2천 7백 8십만 원 기부

세무학과 동문회는 4월 9일 100주년 기념관 이름남기기 캠페인 2천 7백 8십만 원을 기부했다. 4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실에서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기금은 100주년 건립기금으로 사용된다. 세무학과 동문회의 이름은 100주년 기념관에 '세무학과 총동창회 강의실'로 새겨진다.



## 7. 홍보대사 이루미, 2천 7백 5십만 원 약정

홍보대사 이루미는 4월 4일 100주년 기념관 이름남기기 캠페인 2천 7백 5십만 원을 약정했다. 3월 27일 본관 강의실에서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기금은 100주년 건립기금으로 사용되며, 홍보대사 이루미의 이름은 100주년 기념관에 '이름(RUM)'으로 새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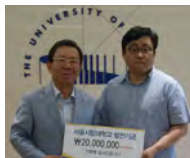
## 8. 박병수 동문(조경 79), 2천 5백만 원 기부

박병수 동문(조경 79)이 2월 21일 장학금 5백만 원, 4월 27일 장학금 1천만 원, 100주년 기념관 이름남기기 캠페인 1천만 원, 총 2천 5백만 원을 기부했다. 기금은 ROTC와 조경학과 장학금과 100주년 건립기금으로 사용된다. 박병수 동문의 이름은 100주년 기념관 기부벽에 새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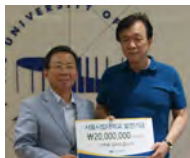
## 9. 박훈 교수(세무학과), 2천만 원 기부

박훈 교수(세무학과)가 6월 12일 100주년 이름남기기 캠페인 2천만 원을 기부했다. 8월 1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실에서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기금은 100주년 건립기금으로 사용되며, 박훈 교수의 이름은 2세기관에 '박훈 홀로' 새겨진다.



## 10. 윤명오 교수(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2천만 원 기부

윤명오 교수(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가 100주년 기념관 이름남기기 캠페인 총 2천만 원을 기부했다. 8월 1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실에서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기금은 100주년 건립기금으로 사용되며, 윤명오 교수의 이름은 2세기관의 학생라운지에 '윤명오 룸'으로 새겨진다.



## 11. 이현구 동문(사회 96), 1천 6백 5십만 원 기부

이현구 동문(사회 96)이 대학문화, 체육 및 홍보활동 지정기금 총 1천 6백 5십만 원을 기부했다. 기금은 총동창회 골프대회, 학생과 해외탐방 프로그램 지원기금으로 사용된다.



## 12. 김태현 교수(기계정보공학과), 1천 1백 5십만 원 약정

김태현 교수(기계정보공학과)가 2월 1일 장학금 1천 1백 5십만 원을 약정했다. 기금은 기계정보공학과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 13. 경영대학원 SEMBA 11기 원우회, 1천 1백만 원 기부

경영대학원 SEMBA 11기 원우회는 2월 22일 학술·연구기자재 구입 및 시설확충 지정기금 1천 1백만 원을 기부했다. 기금은 경영대학의 학술·연구기자재 구입 및 시설확충에 사용된다.



## 15. 박일 동문(건축 81), 1천만 원 기부

박일 동문(건축 81)이 1월 17일 장학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기금은 건축학부, 행정학과,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기계정보공학과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 17. 유남중 동문(환경 83), 1천만 원 기부

유남중 동문(환경 83)이 3월 22일 100주년 기념관 이름남기기 캠페인 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8월 7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실에서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기금은 100주년 건립기금으로 사용되며, 유남중 동문의 이름은 100주년 기념관 기부벽에 새겨진다.



## 19. 이기의 동문(원예 61), 1천만 원 약정

이기의 동문(원예 61)이 4월 11일 100주년 기념관 이름남기기 캠페인 기금 1천만 원을 약정했다. 기금은 100주년 건립기금으로 사용되며, 이기의 동문의 이름은 100주년 기념관 기부벽에 새겨진다.



## 21. 이영주 교수(도시방재안전연구소), 1천만 원 기부

이영주 교수(도시방재안전연구소)가 1월 31일 대학문화, 체육 및 홍보활동 지정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8월 1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실에서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기금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의 대학문화, 체육 및 홍보활동에 사용된다.



## 14. 성민영 교수(기계정보공학과), 1천 9십만 원 약정

성민영 교수(기계정보공학과)가 3월 2일 1천 9십만 원을 약정했다. 기금은 기계정보공학과 재학생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 16. 양병용 동문(영어 84), 1천만 원 기부

양병용 동문(영어 84)이 100주년 기념관 이름남기기 캠페인 1천만 원을 기부했다. 8월 7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실에서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기금은 100주년 건립기금으로 사용되며, 양병용 동문의 이름은 100주년 기념관 기부벽에 새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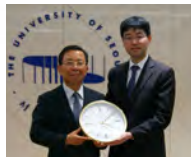
## 18. 유태승 동문(원예 71), 1천만 원 기부

유태승 동문(원예 71)이 100주년 이름남기기 캠페인 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기금은 100주년 건립기금으로 사용되며, 유태승 동문의 이름은 100주년 기념관에 '유태승 강의실'로 새겨진다.



## 20. 하라야마 미치타카 동문(세무전문대학원), 1천만 원 약정

하라야마 미치타카 동문(세무전문대학원)이 3월 9일 일반발전기금 1천만 원을 약정했다. 3월 9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실에서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으며, 기금은 100주년 건립기금으로 사용된다.



## 22. 최병호 교수(도시보건대학원), 1천만 원 기부

최병호 교수(도시보건대학원)가 4월 20일 100주년 이름남기기 캠페인 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8월 16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실에서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기금은 100주년 건립기금으로 사용되며, 최병호 교수의 이름은 100주년 기념관 기부벽에 새겨진다.



# 기부자 명단

2018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단위: 원)

관계	성명	약정액	소속
<b>1억원 이상</b>			
일반	이재호	1,000,000,000	(재)월곡주유리산업진흥재단
일반	서울시립대학교 복지회	300,000,000	
동문	이상수	239,000,000	수의58
일반	우리은행	100,250,000	(주)우리은행
동문	익명	100,000,000	
<b>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b>			
일반	메가스터디교육(주)	52,314,150	메가스터디(주)
일반	창성건설주식회사	50,000,000	창성건설(주)
<b>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b>			
교원	김혁	30,000,000	행정학과
동문	세무학과 동문회	27,800,000	
동문	홍보대사 이루미	27,500,000	
동문	박병수	25,000,000	(주)알토지앤엠
일반	국제교육원3	24,103,650	
교원	박훈	20,000,000	세무학과
교원	윤명오	20,000,000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동문	이현구	12,000,000	(주)클리어스코리아
교원	김태현	11,500,000	기계정보공학과
일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11,458,580	SK브로드밴드(주)
동문	경영대학원 SEMBA 11기 원우회	11,000,000	
교원	성민영	10,900,000	기계정보공학과
동문	박일	10,000,000	건축81
동문	양병용	10,000,000	(주)비와이인터내셔널
동문	유남중	10,000,000	(주)일신종합환경
동문	유태승	10,000,000	(주)휘일
동문	이기의	10,000,000	강원대학교
동문	하라야마 미치타카	10,000,000	세무院10
교원	이영주	10,000,000	소방방재학과
교원	익명	10,000,000	
교원	최병호	10,000,000	도시보건대학원
<b>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b>			
교원	이수일	9,400,000	기계정보공학과
동문	조성제	8,690,000	(주)에몬스기구
동문	박종면	8,000,000	(주)지승건설터트
교원	강인혜	6,700,000	기계정보공학과
동문	도시과학대학원 공간정보 16학번	6,000,000	
교원	김완순	6,000,000	환경원예학과
교원	김상주	5,500,000	기계정보공학과
동문	김영섭	5,400,000	(주)와이에스에프
동문	나무그늘키우기(조경학과장학회)	5,000,000	
동문	정현식	5,000,000	(주)대성하이테크
동문	경영대학원 27기	5,000,000	
교원	김의용	5,000,000	화학공학과
교원	김한배	5,000,000	조경학과

관계	성명	약정액	소속
교원	최진희	5,000,000	환경공학부
교원	한봉호	5,000,000	조경학과
일반	(주)비지프리에틸	5,000,000	(주)BGF리에틸
동문	건축학부동창회	4,000,000	
직원	송준호	4,000,000	
교원	권원태	3,600,000	기계정보공학과
동문	일산농업협동조합	3,000,000	(주)일산농협
동문	(주)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3,000,000	(주)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동문	대전(여)고 동창회	3,000,000	
동문	정점래	3,000,000	(주)동해종합기술공사
교원	구자용	3,000,000	환경공학부
교원	김도경	3,000,000	교통공학과
교원	김용근	3,000,000	조경학과
교원	김진원	3,000,000	환경원예학과
교원	이동민	3,000,000	교통공학과
교원	정병철	3,000,000	통계학과
교원	한정우	3,000,000	화학공학과
일반	(주)에이치엠스포츠	3,000,000	(주)에이치엠스포츠
일반	대호스포츠	3,000,000	대호스포츠
일반	신영희	3,000,000	충북철거
일반	주식회사 비방트	2,745,000	(주)비방트
직원	시대인의 나눔터	2,552,650	
동문	권오병	2,271,111	(주)아섬
일반	대륙제관	2,101,800	대륙제관
동문	김기동	2,000,000	세무사김기동사무소
동문	김욱	2,000,000	산업경영75
교원	남황우	2,000,000	도시행정학과
교원	심이성	2,000,000	환경원예학과
교원	유석연	2,000,000	도시공학과
교원	이종원	2,000,000	철학과
교원	정형섭	2,000,000	공간정보공학과
교원	한상호	2,000,000	한울법률사무소
교원	홍수민	2,000,000	영어영문학과
직원	오재왕	2,000,000	
일반	하나은행	2,000,000	KEB하나은행
일반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2,000,000	
일반	김강수	2,000,000	(주)콘어스
교원	신동현	1,600,000	기계정보공학과
교원	한문섭	1,500,000	물리학과
동문	태권도부(회오리)장학회	1,333,333	
교원	김민호	1,300,000	컴퓨터과학부
일반	한길아이엔에스 주식회사	1,020,000	한길아이엔에스(주)
동문	강기혁	1,000,000	경영88
동문	강대권	1,000,000	롯데건설(주)
동문	김중식	1,000,000	법무법인(유한)해송

관계	성명	약정액	소속
동문	민승도	1,000,000	위생75
동문	서울시립대학교 교양파주동문회	1,000,000	
동문	송지연	1,000,000	사회05
동문	양준모	1,000,000	(주)미래지앤씨
동문	양희선	1,000,000	경영16
동문	이동률	1,000,000	경영88
동문	조은희	1,000,000	조은희세무회계사무소
동문	행정82일동	1,000,000	
동문	한영희	1,000,000	도행84
동문	박종균	1,000,000	경영86
동문	김학용	1,000,000	화학89
동문	성부경	1,000,000	토목88
동문	봉만영	1,000,000	법학82
동문	도시보건대학원 1기 원우회	1,000,000	
동문	정우호	1,000,000	영어08
동문	조영룡	1,000,000	경영院16
동문	박시영	1,000,000	행정05
동문	서강석	1,000,000	행정76
동문	윤종실	1,000,000	행정82
교원	김강수	1,000,000	건축학부
교원	김효	1,000,000	화학공학과
교원	서순탁	1,000,000	도시행정학과
교원	신재휴	1,000,000	생활체육정보학과
교원	우명제	1,000,000	도시공학과
교원	이건	1,000,000	도시사회학과
교원	이동훈	1,000,000	환경공학부
교원	이부영	1,000,000	환경원예학과
교원	이상석	1,000,000	조경학과
교원	이성호	1,000,000	경영학부
교원	임남희	1,000,000	음악학과
교원	정주렴	1,000,000	경영학부
교원	정지선	1,000,000	세무전문대학원
교원	정철수	1,000,000	화학공학과
교원	최기호	1,000,000	세무전문대학원
교원	현창택	1,000,000	건축학부
교원	홍대형	1,000,000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교원	변상무	1,000,000	경영학부
교원	김지영	1,000,000	도시사회학과
교원	소현수	1,000,000	조경학과
교원	신창환	1,000,000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원	박병은	1,000,000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원	염춘호	1,000,000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원	김정민	1,000,000	경영학부
교원	김충호	1,000,000	도시공학과
직원	김수경	1,000,000	

관계	성명	약정액	소속
직원	백인호	1,000,000	
직원	오미미	1,000,000	
직원	이연옥	1,000,000	
직원	이현숙	1,000,000	
직원	조성민	1,000,000	
직원	최은경	1,000,000	
직원	최대봉	1,000,000	
직원	이해경	1,000,000	
직원	유혜정	1,000,000	
직원	박수정	1,000,000	
일반	디자인그룹희오	1,000,000	디자인그룹희오
일반	이원구	1,000,000	정훈기업
일반	이스트그룹	1,000,000	이스트그룹
동문	이영진	900,000	수의68
<b>1백만원 미만</b>			
일반	우리카드	888,800	(주)우리카드
동문	이상도	500,000	법학85
동문	송주섭	500,000	행정75
교원	김원중	500,000	신소재공학과
교원	김정현	500,000	화학공학과
교원	김태영	500,000	도시행정학과
교원	김현성	500,000	행정학과
교원	이윤석	500,000	환경조각학과
교원	성재철	500,000	수학과
교원	법전원 교수테니스회	500,000	
일반	삼영인쇄	500,000	
일반	경희대학교 교수테니스회	500,000	
동문	성기원	400,000	수의57
교원	김설향	400,000	스포츠과학과
직원	김찬희	400,000	
직원	최승영	400,000	
직원	황경민	400,000	
동문	김민수	360,000	법학02
일반	비씨카드	327,023	
일반	강촌수련원구내식당(위탁)	300,000	
일반	강윤홍(센테니스)	300,000	
동문	유현열	180,000	건축89
동문	구자훈	100,000	전자81
동문	이주현	100,000	환경원예95
교원	신성휘	100,000	경제학부
동문	이승용	70,000	
일반	서정린	59,000	
동문	한상호	30,000	행정82

# 100주년 기념관 기부벽 설치

## “시대를 향한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합니다”

‘100주년 기념관 이름남기기 캠페인’은 100주년 기념관 내 강의실 등의 공간에 일정액 이상 기부해 주실 때,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 드리는 캠페인입니다. 2017년 3월부터 추진된 이름남기기 캠페인 참여 현황은 2018년 6월 말 기준 180명 23억 원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이름남기기 캠페인에 참여한 경우 100주년 시민문화교육관 24개실 및 21세기관 7개실 공간명을 기부자 이름으로 명명하는데, 현재 잔여 공간은 3억 원 이상 3개실, 1억 원 이상 3개실입니다.



강기혁 경영학과 교수	김영록 경영학과 교수	김정민 경영학과 교수	구대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한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인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동창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부 동문회	신재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중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준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정환 경영학과 교수	유정별 경영학과 교수	원윤희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선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신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최기수 경영학과 교수	임미애 경영학과 교수	최원석 경영학과 교수	한국전력공사 서울시립대학교 동문회	NH농협 서울시립대학교 동문회							
김대권 경영학과 교수	김관수 경영학과 교수	강성욱 경영학과 교수	김범준·박희지 경영학과 교수	김상정 도시행정학과 교수	박동주 경영학과 교수	박인권 경영학과 교수	박내천 경영학과 교수	서강석 경영학과 교수	성기원 경영학과 교수	송준호 경영학과 교수	서태연의 나눔터	신창환 경영학과 교수	양병용 경영학과 교수	오동훈 경영학과 교수	이성수 수학학과 교수	유병덕 경영학과 교수	유병덕 경영학과 교수	원윤희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근주 경영학과 교수	이병정 경영학과 교수	채홍석 경영학과 교수	최석만 경영학과 교수	포스코 서울시립대학교 동문회	조수진 경영학과 교수	최기호 경영학과 교수	최승연 경영학과 교수	KB국민은행 서울시립대학교 동문회
권오병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영만 경영학과 교수	김종표 경영학과 교수	김정국 경영학과 교수	최재능 경영학과 교수	김영규 경영학과 교수	신신호 경영학과 교수	김규식 경영학과 교수	변상우 경영학과 교수	서순탁 경영학과 교수	서태연의 나눔터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 동문회	서울시립대학교 미식축구부 졸업생 동문회	양경화 경영학과 교수	영준호 경영학과 교수	오유성 경영학과 교수	이성수 수학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유정환 경영학과 교수	이창욱 경영학과 교수	이연욱 경영학과 교수	이태희 경영학과 교수	임성학 경영학과 교수	조수진 경영학과 교수	최기호 경영학과 교수	최승연 경영학과 교수	KB국민은행 서울시립대학교 동문회
강건 경영학과 교수	고영순 경영학과 교수	강철희 경영학과 교수	김희교 경영학과 교수	신신호 경영학과 교수	박준 경영학과 교수	강철희 경영학과 교수	김대중 경영학과 교수	변상우 경영학과 교수	서순탁 경영학과 교수	서태연의 나눔터	서울시립대학교 교육전문지원 노동조합	송지연 경영학과 교수	양준호 경영학과 교수	오미애 경영학과 교수	이성수 수학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유정환 경영학과 교수	이창욱 경영학과 교수	이연욱 경영학과 교수	이태희 경영학과 교수	임성학 경영학과 교수	조수진 경영학과 교수	최기호 경영학과 교수	최승연 경영학과 교수	KB국민은행 서울시립대학교 동문회	
강성모 경영학과 교수	김대욱 경영학과 교수	김은숙 경영학과 교수	김종식 경영학과 교수	김건수 경영학과 교수	신신호 경영학과 교수	김대중 경영학과 교수	변상우 경영학과 교수	서순탁 경영학과 교수	서태연의 나눔터	서울시립대학교 교육전문지원 노동조합	송지연 경영학과 교수	양준호 경영학과 교수	오미애 경영학과 교수	이성수 수학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유정환 경영학과 교수	이창욱 경영학과 교수	이연욱 경영학과 교수	이태희 경영학과 교수	임성학 경영학과 교수	조수진 경영학과 교수	최기호 경영학과 교수	최승연 경영학과 교수	KB국민은행 서울시립대학교 동문회		
김신재 경영학과 교수	김인호 경영학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김성향 경영학과 교수	신신호 경영학과 교수	박종운 경영학과 교수	김대중 경영학과 교수	변상우 경영학과 교수	서순탁 경영학과 교수	서태연의 나눔터	서울시립대학교 교육전문지원 노동조합	송지연 경영학과 교수	양준호 경영학과 교수	오미애 경영학과 교수	이성수 수학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유정환 경영학과 교수	이창욱 경영학과 교수	이연욱 경영학과 교수	이태희 경영학과 교수	임성학 경영학과 교수	조수진 경영학과 교수	최기호 경영학과 교수	최승연 경영학과 교수	KB국민은행 서울시립대학교 동문회		
김지은 경영학과 교수	김성근 경영학과 교수	세우학과 동문회	문영일 경영학과 교수	신신호 경영학과 교수	박종운 경영학과 교수	김대중 경영학과 교수	변상우 경영학과 교수	서순탁 경영학과 교수	서태연의 나눔터	서울시립대학교 교육전문지원 노동조합	송지연 경영학과 교수	양준호 경영학과 교수	오미애 경영학과 교수	이성수 수학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유정환 경영학과 교수	이창욱 경영학과 교수	이연욱 경영학과 교수	이태희 경영학과 교수	임성학 경영학과 교수	조수진 경영학과 교수	최기호 경영학과 교수	최승연 경영학과 교수	KB국민은행 서울시립대학교 동문회		
강현규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진희 경영학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동문 교수회	박수정 경영학과 교수	신신호 경영학과 교수	박종운 경영학과 교수	김대중 경영학과 교수	변상우 경영학과 교수	서순탁 경영학과 교수	서태연의 나눔터	서울시립대학교 교육전문지원 노동조합	송지연 경영학과 교수	양준호 경영학과 교수	오미애 경영학과 교수	이성수 수학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유정환 경영학과 교수	이창욱 경영학과 교수	이연욱 경영학과 교수	이태희 경영학과 교수	임성학 경영학과 교수	조수진 경영학과 교수	최기호 경영학과 교수	최승연 경영학과 교수	KB국민은행 서울시립대학교 동문회		
박동원·이재민 서울시립대학교 동문회	곽준환 경영학과 교수	김영영 경영학과 교수	김경현 경영학과 교수	신신호 경영학과 교수	박종운 경영학과 교수	김대중 경영학과 교수	변상우 경영학과 교수	서순탁 경영학과 교수	서태연의 나눔터	서울시립대학교 교육전문지원 노동조합	송지연 경영학과 교수	양준호 경영학과 교수	오미애 경영학과 교수	이성수 수학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유정환 경영학과 교수	이창욱 경영학과 교수	이연욱 경영학과 교수	이태희 경영학과 교수	임성학 경영학과 교수	조수진 경영학과 교수	최기호 경영학과 교수	최승연 경영학과 교수	KB국민은행 서울시립대학교 동문회		
서울산업대학 1974-1980	김중호 경영학과 교수	남진 경영학과 교수	곽대상 경영학과 교수	민승도 경영학과 교수	박시영 경영학과 교수	신신호 경영학과 교수	박종운 경영학과 교수	김대중 경영학과 교수	변상우 경영학과 교수	서순탁 경영학과 교수	서태연의 나눔터	서울시립대학교 교육전문지원 노동조합	송지연 경영학과 교수	양준호 경영학과 교수	오미애 경영학과 교수	이성수 수학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유정환 경영학과 교수	이창욱 경영학과 교수	이연욱 경영학과 교수	이태희 경영학과 교수	임성학 경영학과 교수	조수진 경영학과 교수	최기호 경영학과 교수	최승연 경영학과 교수	KB국민은행 서울시립대학교 동문회
경기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경 경영학과 교수	김의문 경영학과 교수	김심화 경영학과 교수	문성덕 경영학과 교수	박관선 경영학과 교수	신신호 경영학과 교수	박종운 경영학과 교수	김대중 경영학과 교수	변상우 경영학과 교수	서순탁 경영학과 교수	서태연의 나눔터	서울시립대학교 교육전문지원 노동조합	송지연 경영학과 교수	양준호 경영학과 교수	오미애 경영학과 교수	이성수 수학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유정환 경영학과 교수	이창욱 경영학과 교수	이연욱 경영학과 교수	이태희 경영학과 교수	임성학 경영학과 교수	조수진 경영학과 교수	최기호 경영학과 교수	최승연 경영학과 교수	KB국민은행 서울시립대학교 동문회
기울경 경영학과 교수	김수진 경영학과 교수	고형석 경영학과 교수	김옥 경영학과 교수	문성덕 경영학과 교수	박관선 경영학과 교수	신신호 경영학과 교수	박종운 경영학과 교수	김대중 경영학과 교수	변상우 경영학과 교수	서순탁 경영학과 교수	서태연의 나눔터	서울시립대학교 교육전문지원 노동조합	송지연 경영학과 교수	양준호 경영학과 교수	오미애 경영학과 교수	이성수 수학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신성환 경영학과 교수	유정환 경영학과 교수	이창욱 경영학과 교수	이연욱 경영학과 교수	이태희 경영학과 교수	임성학 경영학과 교수	조수진 경영학과 교수	최기호 경영학과 교수	최승연 경영학과 교수	KB국민은행 서울시립대학교 동문회

#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기부자 정보				
성명(기관명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생일	년 월 일 (양/음)
연락처	주소			
	전화(자택/직장)	E-mail		
	휴대폰	직장명/부서/직위		
기부금공제 영수증 신청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법인 ※개인은 발전기금에서 국세청에 등록합니다.			
본교관계	<input type="checkbox"/> 동문/재학생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교수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금 약정 정보				
약정액	금 _____ 원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급여공제(원천징수 동의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납부기간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input type="checkbox"/> 분할납 ※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급여공제(원천징수 동의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납부예정	년	월	은행 납부(예정)	

※자동이체(CMS) 또는 분할납부를 선택하신 경우는 하단의 추가 정보를 작성해 주십시오.

기금 사용 정보	
기금 사용처	<b>일반기금 :</b> - 기부하신 소중한 기부금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b>용도지정 :</b>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10%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일반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10% 이상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기재해 주세요 : %
기부정보 공개 여부	※ 기부사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기부(약정)자 명단(홈페이지/책자 등) <input type="checkbox"/> 교내기사(홈페이지/책자 등) <input type="checkbox"/> 언론보도

(재)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기부(약정)자 (서명: )

추가 입력사항	
자동이체(CMS)	은행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_____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기부자 본인과 다를 경우에만 기재) : ※ 이체는 매월 25일 진행되나 이체오류 등 미납의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금융결제원에 추가로 이체 요청합니다.
분할납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_____ 원씩 회) <input type="checkbox"/> (서울시립대 교직원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월정액 기부
기금운영	<input type="checkbox"/> 원금은 영구 보존하고 이자로 지원(1억 원 이상 가능) <input type="checkbox"/> 원금을 사용하여 지원
입금계좌 안내	대학발전기금 : 우리은행 849-023892-13-011 예금주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시대천사(10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 : 우리은행 1005-202-235030 예금주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시립대와 함께라면(월 1만 원 기부) : 우리은행 1005-002-043164 예금주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귀하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이사장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100주년 기념관 이름 남기기 캠페인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는 길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겨 주세요.

'100주년 기념관 이름 남기기 캠페인'은 100주년 기념관 내 강의실, 실험실 등의 공간에 일정액 이상 기부해 주실 때,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 드리는 캠페인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는 열망이 담긴 공간, 시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참여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참조)

서울시립대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fund.uos.ac.kr)에서 약정



#### 오프라인(전화 또는 팩스 신청)

전화(02-6490-6321~3) 또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팩스(02-6490-6339)로 전송

※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해 주세요.  
 ※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납부방법 무통장 입금 및 자동이체(CMS)

• 납부계좌 100주년 이름남기기 캠페인 우리은행 1005-202-235030 (재)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